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2020.11.30.(월) 14:00  
영상회의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모두말씀

2020. 11. 3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II. IFRS 17 도입경과

---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17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시기를 '23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IFRS 17에 따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을 예고하는 등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IFRS 17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 ①IFRS 17 도입 대비 보험업법규 개편방향과
- ②보험업법규 개정 추진체계 및 주요 개정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Ⅲ. IFRS 17 도입과 보험산업의 미래

---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금리·저성장, 코로나 19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입니다.

금융당국은 '23년 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통해  
회계기준 변경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IFRS 17 도입이  
우리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